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포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남선교회 · 여전도회 연합기도회

28일(금) 오후 6시부터 1층 예배실

남선교회 · 여전도회 연합기도회가 28일(금)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남녀전도회원들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99년 흥해작전을 앞두고 영적 각성을 위해 전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기도회는 서울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원 전원이 참가하게 된다.

이날 일정은 오후 6시 식사 시간을 갖고 7시부터 찬양의 시간이 30분 가량 진행된다.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종윤 목사의 강 의가 준비되어 있고 9시 30분까지 이성득 목사가 각 지회 소개 및 친교시간을 이끈다. 합

동기도회는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박귀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각 지회 소개 및 친교시간에는 99 흥해작전에 대한 전도 참모부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문형숙 평신도 선교사 파송

문형숙 집사(4교구 주옥환 권사 장녀)가 아프리카 카메룬의 복음주의 신학교(교장 Baim 박사) 교수로 초빙받고 6월초 프랑스를 거쳐 10월 학기부터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문 선교사는 지난해 파리 소르본느대학 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93년 우리 교회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아프리카 목회자를 위한 불어 통역을 맡은 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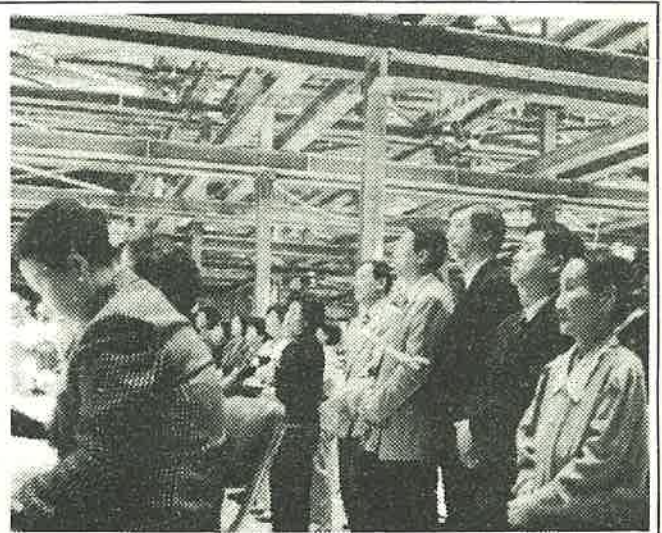
문형숙 집사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는 오늘 찬양예배시 갖게 된다.

현장 바닥서 특별기도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17일 낮 12시에 건축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는 특별히 새 예배당의 토목 공사가 최종 단계인 바닥을 고르기에 이룸에 따라 건축 현장 바닥에서 성도들과 건축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성도들은 임시로 설치된 좁은 계단을 통해 바닥으로 내려가 거대한 철근 빔들이 얽힌 아래 쪽에 자리를 잡았다.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찬양과 이종윤 목사의 말씀, 기도를 함께 드렸다. 이어 시공회사 대표 등 관계자들의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새 예배당은 이날 기도회를 드린 바닥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이 건축된다.



안수집사 · 권사 등 일꾼 55명 피택



허상한

신순우

이남성

정동호

최재규

제 6대 안수집사 5명과 권사 50명이 지난 주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새로 선출됐다.

이날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안수집사는 허상한 신순우 이남성 정동호 최재규 등 모두 5명이다<사진>. 이들 5명의 피택 안수집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은 40명의 후보자 중 투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됐다.

피택안수집사들은 앞으로 6개월 간 당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거쳐 오는 11월 교회설립 8주년 기념일에 집사안수를 받게 된다. 단 교육에 1/5이상 결석하거나 최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된다.

또 권사는 당회 추천을 받은 50명 전원이 피택됐다.

새로 권사로 뽑힌 50명은 안수집사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권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권길자 박선자 김명옥 김선희 김성은
김수호 김윤자 김인희 김치순 김희숙 나옥녀
남태순 박명석 박영자 박윤희 서옥덕 선연자
송두심 송옥혜 신동기 심화숙 여영숙 여현진
오영자 왕경희 이민자 이봉규 이연숙 이영숙
이영희 이용자 이운진 인찬희 임윤자 전수자
정연택 정현숙 조상희 채덕희 최근자 최봉애
최원자 최일준 한건석 한춘홍 황노진 황보추자
황인숙 황재연

이사야 강해

유대인의 불신앙

이사야 22장 8-11절

91-517 (5)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8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요새가 되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앗시리아에 의해 빼앗기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요새지는 히브리어로 마삭이라고 읽는데 마삭이란 덮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약점을 노출시키게 하셨다는 해석이고 세 번째는 앗시리아 사람들이 유다 처녀들을 강간하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주석에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덮었던 것, 곧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위험과 억울함이 이제는 최악의 경지에 다다르고 만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예루살렘

유다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했는데 인간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앗시리아 군대가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제일 먼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무기 창고만을 바라보았습니다(8절).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은 앗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저들이 무기 창고를 바라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병기 창고를 바라본 다음에 성이 무너진 곳을 살펴보았습니다(9절). 그리고 성의 허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든든하게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방어할 줄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랫못이란 물 저장고를 말합니다(9절). 물이 귀중한 사막지대에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물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인간적으로 전쟁을 대비해서 완벽

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10절).

유다 백성들은 개인의 가옥을 헐어서까지 방어벽을 든든히 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재료를 얻기 위해 자기 집을 헐어서 방어벽을 짓고 방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옛 못, 곧 아랫못에 물을 저수하기 위해 성안의 벽을 다시 쌓아 안팎의 성벽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히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 주시고 역사의 주권을 갖고 만물의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사 22:8-11)



이종운 목사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11절). 이것은 앗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에게 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유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완전하게 대비했습니다(11절). 그러나 이들은 병기를 만들어 창고에 넣게 하고 성을 수축케 하시며 저수지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신 이’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때때로 환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습니다.

옛적이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서 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 줄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3. 환난을 당할 때

인간이 환난을 만날 때 인간의 수단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추가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멀리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할 유다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니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사 50:15). 환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환난 날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에 처해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적으로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극심한 환난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확실하게 맛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으면 그것은 마음 속에 일곱 마귀가 들어오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희주 장로님을 천국에 보내고

못다한 사랑의 대화를 ...

김범래(집사, 1교구)

지난 주 주보에서 나희주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 장로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교사체육대회 때의 일입니다. 그때 유년부를 섬기시던 장로님께서서는 대회가 끝나자 유년부 모든 교사들을 정릉의 한 음식점으로 이끄시고는 조금 이른 듯한 저녁을 대접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여교사였던 터라 체육대회가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 저녁밥을 짓기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장로님께서 교사들을 배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어느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장로님께서서는 평소에도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면 눈여겨 봐 두셨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배풀기를 즐겨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찾은 음식점도 지나치게 고급스럽지도 않으면서 정갈한 음식맛이 장로님의 뜻뜻한 사랑과 함께 묻어 나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교사들에게 대접하시겠다고 교외로 나섰다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밤늦도록 고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떠오르지만 어찌 짧은 글로 장로님께서 남기신 많은 사랑의 일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가시고 부족한 나에게는 장로님에 대한 사랑의 빛만이 남아 버렸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몸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의 족적을 남겨두고 떠나가신 나 장로님!

이제는 이땅에 남아있는 부족한 저희들이 장로님께서 펼쳐 놓으셨던 넓은 사랑의 공간들을 조금이나마 매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 장로님!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예수님을 모시고 못다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익경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큰 별이게 하소서

신동기(집사, 장년부 교사)

숨가쁜 세월
5월의 피빛 철쭉은
덧없는 봄날
마지막 꽃잎을
가슴 깊은 곳에 흘려 넣고
홀쩍 떠나신 날!

인생의 길이가
한뼘과 같아서
오십년의 세월이
오는 듯 날아가 버리고
흙투성이 아픔의 쪽지들이
하늘에 매달려

가난한 심장마다
하얀 부활로 피어나게 하소서

진정
삶을 껴안고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던 날!
기름진 꿀짜기
새 하늘의 문이 열리던
주님을 뵈고
십자가 보배 피로 눈부시게 단장하신 날!

천성을 향하여
영광! 영광!
장엄하게 행진하는
이 땅의 영원한 스테판!
끝없이 부르고 싶은 이름
'서울'의 큰 별이게 하소서

순례길에 만난 사람 -

서명 천부장 박순봉 권사

“고향 땅 형제들 생각에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여기 서명 좀 해 주세요”

17일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가 끝난 후 박 권사는 공사 관계자들을 찾아 다니며 설렘없이 서명을 권유했다. “제가 몇 번째인가요?” “3333번째인가 봅니다.”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 달도 채 못되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 천부장의 기록을 일찌감치 넘겨버린 박순봉 권사를 공사 현장에서 만났다.

“권사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글쎄요, 황해도가 고향이라 형제들 생각에 틈이 날 때마다 열심히 뛰었으니까요” 달걀 두어 개나 방울토마토 몇 개를 도시락 삼아 하루 서너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 사이를 왕복하기도 했다며 웃는다. 목도 붓고 발도 아파 고생 좀 했다고 하지만 그 열정은 다른 무엇보다 비길 수 없을 듯 했다.

젊은 사람도 그 100분의 1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을 연세가 높으신 분이 이루시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앞으로 얼마나 더 서명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힘 주시는 대로 계속해야지요”

박 권사는 말씀 중에도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면 곧 그쪽으로 달려가 서명을 권유했다. 더 이상 여쭙어 볼 것도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 인정과 난민촌 건설에 대한 기사 스크랩과 서명 용지를 앞뒤로 한 서명판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가는 박 권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토록 하기에 충분했다.

“여기 서명 좀 해 주세요”

“아, 권사님, 저는 아까 3333번째로 서명 했는데요”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합시다!

북한을 탈출하여 해매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있을 곳도 없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립할 것을 UN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주위 이웃과 함께 적극 참여합시다.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또 보고픈 사람들

노분환(장로, 장년부 부장)

사랑의 고백에는 매우 서툰 시골뜨기이기
에 겉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될 때면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가슴 속에 묻어 두고 싶은 심
정이지만 그래도 서툰 사랑 고백을 시작할까
합니다.

생각하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이 있는 서울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세상
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찬 형제
들이 많이 있는 서울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
니다.

때로는 그 특심한 열심으로 한참 앞서갈
때도 있으나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
문임을 알기에 서로 용납합니다. 때로는 어

려움을 당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
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의
지하면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없기에 이로 인
해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됩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보다는 묵
묵히 주님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형제들이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
손한 형제들이 있기에 서울교회를 사랑합니
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아
들 딸들이 있기에, 능률한 우리의 청년들이
있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낼 신실한 믿음의 후배들이 되어줄 것
을 믿기에 사랑합니다.

비록 몸은 노쇠하셨지만 우리 후배에게 믿
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 주시는 우리 어르
신들이 계시기에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
디 오래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더욱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믿기
에 그분들을 인하여 서울교회를 진심으로 사랑
합니다.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7일(목) 북한난민보호 UN
청원추진위원회 자문·지도위원 연석회의
를 소집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재
위원회에서 주재 해설 발표를 한다.
- * 이현주 집사(4교구 서초다락방)는 동대문
에 의류점 '에스터' 를 개업했다(☎ 2238-
8236).
- * 한신규·한장미 성도(5교구 군포다락방)
는 종로구 창신동에 귀금속점 '토파즈' 를
개업했다(☎ 762-2470).
- * 조중화 군(고동부, 조철기 집사·김영란 성
도 아들)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효행및
모범청소년으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장 선
행상을 수상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노송성 장로·이영옥 집
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에스더 제 3·4전도회는 24일(월) 새 예배
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이사 ■

- * 강동욱 성도는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아파
트로 이사.
- * 임귀순 집사는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아파
트로 이사(☎ 635-2835).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99 홍해작전 주력부대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6	7	8	9	10	11	12
교 구		1·2교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찬 양 대	홍해작전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교회학교	발대식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전 도 회	(총동원)	마리아	요한	루디아	베드로	에스터	바울
참 모 부		전도참모	예배참모	찬양참모	동원참모	홍보참모	봉사참모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3	14	15	16	17	18	19
교 구	1·2교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1·2교구
찬 양 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유아·유치부
전 도 회	한나	모세	마리아	요한	루디아	베드로	에스터
참 모 부	기획참모	전도참모	예배참모	찬양참모	동원참모	홍보참모	봉사참모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20	21	22	23	24	25	26
교 구	3·4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1·2교구	전체교구
찬 양 대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학교	유년·초등부	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유아·유치부	(총동원)
전 도 회	바울	한나	모세	마리아	요한	한나	
참 모 부	기획참모	전도참모	예배참모	찬양참모	동원참모	기획참모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2. 홍해작전을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지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